

PC소프트웨어로 홈엔터테인먼트 조명환경 연출

필립스라이팅, 휴 전용 PC 소프트웨어 '휴 싱크' 선택

필립스라이팅코리아(대표 김문성)가 최상의 홈엔터테인먼트 조명 환경을 연출하는 휴(hue) 전용 최초 PC 소프트웨어 휴 싱크(hue Sync)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집안에서 즐기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 홈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신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까지 모바일 앱과 별도의 리모콘과 같은 액세서리 장치만을 통해 제어 가능했던 휴가 휴 싱크를 통해 PC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돼 실용성과 편리성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휴 싱크는 필립스가 개발한 '휴 스마트 컬러 알고리즘'에 기반해 PC에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악에 맞춰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게임과 오디오, 영상, 조명 등 총 4가지 모드로 이뤄져 엔터테인먼트 별 세밀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일출 장면이 담긴 주홍



색 태양의 빛을 설정한 공간 내에 재현하거나, 게임 속의 폭발 장면을 실감나게 조명으로 연출해 실제 게임 속으로 들어온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사용자에 따라 밝기, 색상, 변화 속도 등의 효과를 달리할 수 있어 똑같은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조명 효과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윈도우 10버전과 애플 맥 OS(시에라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휴 싱크 앱은 데스크탑, 노트북은 물론이고 PC와 연결된 TV를 활용할 수도 있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감상할 시 홈시어터와 같은 연출이 가능해 특히 유용하다. 김승교 기자 kimsk@

KERI-로세티, 러시아 전력망 혁신 협력 '모색'

러시아 최대 전력망 기업인 로세티(ROSSETI)가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최규하)을 방문해 러시아 내 전력망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과제와 관련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에브게니 울호비치 로세티 전략담당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은 지난 8일

전기연구원(이하 KERI) 청원본원을 방문해 최규하 원장 등 KERI 경영진과 미팅을 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15개의 전력망 자회사를 보유한 로세티는 러시아 배전망 자산의 74%와 송전망 자산 88%를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78%를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울호비치 로세티 전략담당 부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KERI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또는 공동연구 등 관련 상호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컨설팅과 공동연구 등 로세티의 제안을 환영하며 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교 기자

中 광저우 조명 전시회서 혁신 제품 공개

필룩스, 중국서 매출 상승·브랜드 입지 다져

조명 전문기업인 필룩스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8 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해 혁신적인 조명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매년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중국 최대 조명박람회로 21개국 2428개 업체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필룩스는 지난 2001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상해지사 설립을 통해 중국 조명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이룬 필룩스는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제품 홍보와 고객 발굴을 통해 세계 최대 조명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 상승과 브랜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필룩스는 고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플렉시블 네온 시리즈'를 사용해 부스 외벽의 유려한 곡선을 표현했으며, 전시 부스를 ▲리테일 ▲액세서리 ▲키친 ▲아웃도어 등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사의 주요 LED 제품군인 초슬림 바

(Bar) 타입의 'ND프로 시리즈', 소형 레일 조명인 '모노레일 시리즈'와 신제품 '모노레일2 시리즈', 명품 브랜드 하이엔드 조명인 '릭스필 시리즈', 스마트 락킹 시스템이 적용된 AC 제품인 '슬립랩 슬라이드'와 차세대 미래 조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이용해 실제와 같은 조명 연출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명 제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를 사용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무선 조명 컨트롤 시스템인 '필마스터'를 선보이며 차세대 스마트 조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장동 필룩스 상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필룩스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시키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나노 열전 반도체 내년부터 '양산'

LG이노텍, 소형 가전 크기·소음 ↓

LG이노텍(대표 박종석)이 나노 다결정 열전 반도체 기술로 본격적인 열전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이노텍은 나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한 열전 반도체 개발에 성공, 최근 구미 공장에 소재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열전 반도체는 전기를 공급해 냉각·가열 기능을 구현하고, 온도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 부품이다. 열전 반도체에 전기가 흐르면 한쪽은 발열, 반대쪽은 냉각되는 '펠티어 효과(Peltier effect)'와 양쪽에 온도차를 주면 전력을 발생시키는 '제백 효과(Seebeck effect)'를 이용한다.

이번에 개발된 LG이노텍의 열전 반도체는 이 회사가 독자 개발한 나노 다결정 소재를 적용했다.

나노 다결정 소재는 10억분의 1미터 수준인 나노미터(nm) 단위의 초미세 결정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 다결정 소재의 강도와 효율을 높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차량·선박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나노 다결정 소재는 단결정 소재 대비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 진동으로 소재가 깨지기 쉬운 차량·선박 등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열저항을 최소화시킨 자체 모듈 구조를 적용해 단결정 열전 반도체 모듈 대비 냉각 효율을 30% 높여 동일 온도도

냉각시 소비전력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LG이노텍의 열전 반도체를 냉장고, 정수기 등 소형 가전에 장착하면 가전의 크기와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컴프레서 방식의 소형 냉장고 소음이 29데시벨(dB)이라면, 열전 반도체 적용 시 소음을 최대 19데시벨까지 낮출 수 있다. 생활 가전의 크기도 컴프레서 방식 대비 최대 40%까지 작고 얇게 만들 수 있다.

LG이노텍의 열전 반도체 기술은 통신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광송·수신기 등 통신용 데이터 전송 장비에 열전 반도체를 적용하면, 광통신 부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통신 부품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파장 변화, 출력 감소 등으로 데이터 전송 효율이 저하되어 통신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승교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축구의 만남'

IT기술 결합 특허출원 증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한 관정을 위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과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이 내장된 공인구가 도입됐다. 이처럼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축구장비 관련 발명은 국내에서도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IT기술이 결합된 축구장비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4건이 출원됐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훈련 및 게임 장치(37%), 축구공(18%), 경기장 관련 시설(18%)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개최 이후에는 축구화 18%, 분석기록 장치 18%, 정강이 보호대가 1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IT 발전에 따라 기술 분야가 다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을 보면 2009년까지는 개인이 80%를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개인 출원인 비중이 67%로 줄어들고, 중소기업 15%, 대학교와 연구소가 6%, 대기업이 3%를 차지했다.

김용정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축구산업은 세계가 시장인 만큼 IT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며, 이는 일자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에스디가 에너지의 새 역사를 열어갑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태양광 전문설계·전문감리·엔지니어링·시공

검색 SD

www.sdenc.kr Tel: 02 835 7891